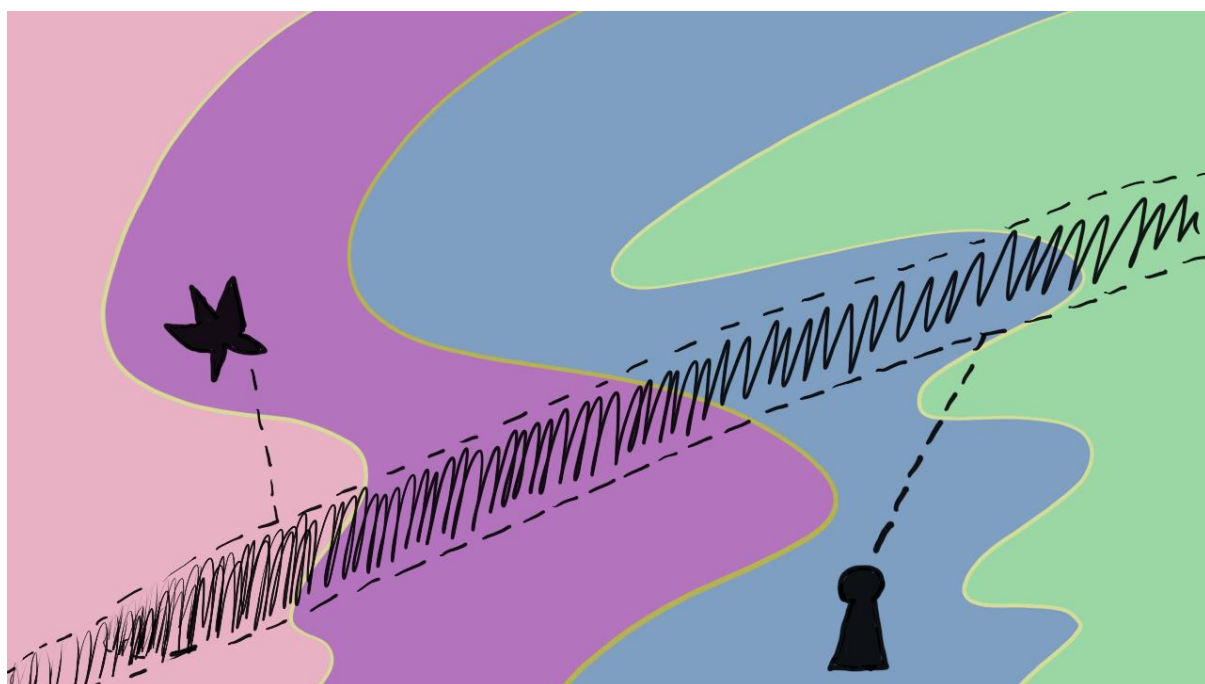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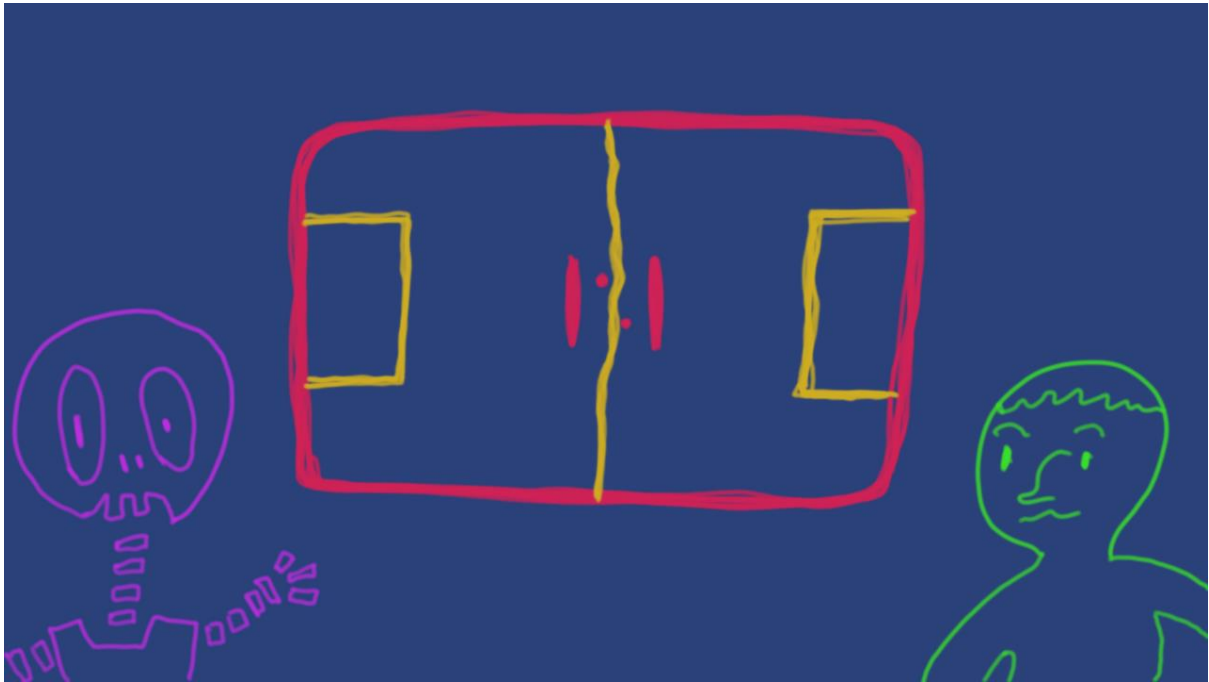


3



## 수능 384



이종민 지음

1;

P는 침대 옆 등을 켜다. 사실 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일부러 켜 본 것이었다.

P는 현재 수능출제위원으로 강원도 삼척 어느 유스호스텔에 묵고 있었다. 유스호스텔이라, 고등학교 이후로 들어본 적 없는 걸. P는 미니쿠퍼를 몰고 그 유스호스텔의 넓은 부지로 들어오며 생각했다. P는 출제위원치고는 번민이 많은 편은 아니었음에도 (대부분의 출제위원들은 공부만 하다가 지나간 자신들의 지나간 20대를 아쉬워하며 번민하기에 금방 탈모가 온다) 유스호스텔 특유의 탁한 노란 외벽을 보는 순간 P는 고등학교 때 옆반에 주근깨 비스무리한 게 나 있던 여자애를 떠올렸다.

P는 어쨌건, 등을 켜고 창밖을 봤다. 놀라울 정도로 허했다. 나무, 산, 빛 바랜 외벽 건물. P가 지금까지 놀란 점이 있다면, 이곳의 낮은 밤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재수 후 낮밤이 바뀐 재수생들마냥 유스호스텔 안의 모든 것들이 오후 4시까지 깊게 잠든 듯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문제를 내고 학생들로 하여금 싫어하는 걸 하는 게 어른이란 걸 깨닫게 만들어 줘야 했다. 그래서 P와 선배 출제위원들은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아침 밥은 시리얼과 토스트와 에그스크램블이었다. “왔는가” 대머리 철학 교수였다. 모든 교수들이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대머리로 분류되는 인물이지만, 이 철학 박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데아에 가까운 대머리였다. 진정한 대머리라면, 완전히 머리를 밀면 안되고 약간의 머리가 있었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철학 교수는 온갖 논리식과 잡학으로 가득 찬 자신의 머리 속 순수했던 시절의 소년 같은 마음처럼, 머리 한쪽에 수줍은 검은 털뿔치를 두고 있었다. “왔게나” P는 이 분은 참 문장 구조를 단순하게 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대체로 한 두 마디로 말이 끝나는 편이었다. 짧게 인사를 건네고, 시리얼을 씹으며 이게 왜 오래오오즈가 아닐까 아쉬워하던 P에게 교수가 묵직하게 던졌다. “오늘부터 보안 요원이 1 시간씩 방문할걸세.”

보안 요원은 그냥 보안 요원이었다. 말 그대로 누군가 문제 유출을 하지 않나 감시하는 요원들. P는 출제위원으로 들어온 이래, 식사 시간 외에는 누군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 아직 검수 기간이 5 달이나 남기도 했고, P가 애초에 사람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이 식사시간에나 잠깐씩 대머리 교수와 나누는 이야기가 펍 반갑긴 했다. 그렇기에 P는 벌써 귀찮아졌다. 40대 정도의 나이에 경북 사투리를 쓰는 보안 요원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식당에 널린게 그런 아저씨들인데.

P는 오후 2시 48분경, “그럼 이를 통해 현대 양자 역학의 두 딜레마를 종합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와 “결론적으로 양자 역학의 두 딜레마는 간단한 단어로 축약 가능하다” 중 어떤 문장이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으로 들어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P는 평생 양자역학을 두고 고민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점심 메뉴를 뭘로 먹을지 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었지만 어찌겠는가, 누군가는 학생들을 피땀싸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어느 쪽이 더 많은 재수생을 만들어낼지 고민하던 와중 누군가가 벨을 눌렀다. P는 문을 열고 살짝...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니 사실 떨어졌다. 보안 요원은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보안 요원과 P 가 처음 보낸 한 시간은 요 근래 P 에겐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 P 는 수도승 같은 인물은 아닌지라, 아침에 일어나면 한 5 분 정도는 그곳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었다. 물론, 대머리 철학 교수와의 아침 식사가 그렇게까지 P 를 성적으로 흥분시킨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된 것이다. 원래 P 는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선 가장 문란한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안 요원에 의하면 옷을 살살이 벗어서 몸에 어떤 외부와의 연락책이 없는지 보아야 한다고 했고, P 는 바로 잊고 있던 남성성이 찾아온 걸 느꼈다. P 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 문제를 더 봐야 된다면, 뭐 마시고 싶은 건 없냐며. 아쉽게도 보안 요원은 꽤나 융통성 없는 사람이었다. 바로 검사에 들어갔고, P 는 단군 이래로 가장 심란한 시간을 보냈다. 그 이상의 말은 P 의 사생활이니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음 날, P 는 전등을 켤 필요가 없는데도 전등을 키고, 베란다에 나가 보았다. 그리고는 보안 요원이 어떻게 생겼던가, 생각에 빠졌다.

철학 교수는 점심 때쯤 P 에게 중세 유럽의 카드 마술 변천사와 이런 변천사가 상징주의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다가 (가끔 학술적 이야기를 할 때면 그는 수다스러워졌다) P 에게 툭 던졌다. “오늘은 뭘 생각을 그렇게 하나”. P 는 늘 그렇듯이 생각하는 중이라며 얼버무렸다. 대머리 철학인은 역시는 역시군, 이런 실없는 말을 던지고는 카드 마술 변천사에 있어 네 번째로 찾아온 큰 흐름이었다는 광대들의 카드 마술을 통한 쿠데타 메시지 공유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J Q K 로 상징되는 소위 인물 카드 3 장을 광대들이 궁중 화장실의 벽돌 사이에 끼워 넣었고, 그 카드의 네 모서리 중 오른쪽 아래가 쿠데타의 여섯 번째 날 희생된 귀족들이 달라졌을 것이란 말을 대머리 철학자는 늘어놓았다. P 는 이 양반이 역사학자가 아닐지 의심된다는 식으로 쳐다보다가, 빠네 스파게티의 면을 다 먹고는 빵을 조각내기 시작했다.

상징주의라. 저 사실 상징주의 좀 알거든요? 보안 요원은 상징주의에 대해 나무위키에서 긁어 온 듯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보안 요원은 P 의 방에 들어온 후, P 의 사죄(?)를 그냥 웃어 넘기고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P 의 옷을 조사하며 물었다. 그렇기에 상징주의가 언급된 것이다.

형은 수능 출제한답시고 어딘가에 감금됐고, 부모님은 제주도로 연수를 받으러 내려가신 탓에, R 은 집이 어쩐지 조용하다고 생각했다. 부모님도 그리 시끄러운 편은 아니었고, 형은 평소에 옆방에서 쌤처럼 책만 보던 인간이라 시끄러울 일이 없었지만 말이다.

R 은 토스터기에 식빵을 밀어 넣고는 커피를 훌쩍거렸다. 산미가 났는데, R 은 산미를 그닥 좋아하진 않아서 두 모금 마시고는 버렸다. R 은 토스트에 땅콩버터를 발라먹고는 바로 학원 버스를 타러 밖으로 향했다.

R 은 빈지노의 음악을 즐겨 들었다. R 이 늘 친구 S 와 주고 받는 얘기들은 항상 뻘뻘했는데, 그 중 하나는 빈지노의 음악을 들어야 진짜 재수생이라는 것이었다. S 는 사실 R 보다 1 년 더 수능 공부를 한 삼수생이어서 그런지 실제로 삼수를 했다던 빈지노에게 어쩐지 호감을 보낸 편이었다. S 와 R 은 항상 재수 학원 1 층 매점 밖 잔디밭에서 학원의 여학우들 이야기를 하는 데 열심이었다. 정확하게는, R 이 더 열심이었다. S 는 츗코미 혹은 묵직하게 한 방을 던지는 역할이었다. 그 대화가 너무 적나라한 나머지 R 의 사생활로 남겨두겠다.

그 다음 주, S 가 갑작스럽게 실종되었음에도, R 은 그닥 놀라지 않았다. S 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 나름 친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원체 제멋대로인 형이었다. 너무 낭만파여서 수능을 세 번 보게 된 걸지도 모른다. 원래 대작들은 트릴로지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S 의 행방을 아느냐고 학원 담임이 물을 때, R 은 솔직하게 답했다. 제 연락도 잘 안 받는걸요. 선생도 사실은 그닥 걱정되지는 않는 듯 너네 연락은 하고 사는 구나, 라는 말부터 시작해 S 개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라는 말까지 늘어 놓고는 마침내 R 이 참 건실하고 똑똑한 친구라 그런 녀석이 S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라는 예의상의 칭찬까지 늘어놓았다.

S 는 3 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학원에서 S 의 부모와 연락을 취해보려 했으나 그 번호들은 애초에 없는 번호들이었고,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학원 담임은 R 을 불러 S 가 갈 만한 곳이 없는지 캐물었다. R 은 자신이 평소 가고 싶던 곳들의 이름을 대고는, 잠깐의 휴식을 즐기려 학원을 빠져나왔다. S 를 찾으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학원에서 잠깐 나온 것이다. R 은 사실, 학원에선 꽤나 모범생이고 부모님들도 R 에게 그리 간섭하는 편은 아니어서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었지만, R 은 어쩐지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놀러다니는 걸 해 보고 싶었다.

S 가 가 볼만 한 곳은 사실 학원 옆 대형 단지의 지하상가가 아닐까하고 스스로에게 합리화하며 R 은 지하상가에 있는 CGV 에 영화를 보러 들어갔다. 영화는 언제나 그렇듯 스파이물이었다. S 는 어쩐지 정부의 고위 관료, 비밀을 캐는 탐정 이런 것들 따위에 열광하는 인물이어서 영화도 그런 것만 보았다. 팝콘을 뜯고 있던 R 의 옆에 갑자기 누군가 와서 앉았고, R 은 영화가 끝난 다음에야 그게 S 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지하 상가에서 영화만 보고 지낸다는 거지? R 은 물었다. S 는 자신 같은 시네�필에게 재수 학원은 너무 좁다며 여유를 부렸다. R 은 한심하게 생각했다. S 는 국어도 매번 3 등급이 나오는 인간이다. 그런 당신이 어떻게 평론가나 감독이 되겠다고. 물론, S 는 꽤나 겉과 속이 다르기에 그런 말을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학원으로 돌아온 R 이 S 가 몸이 아파서 고향으로 요양갔다고 둘러대고는, 미적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형 P 에게서 편지가 와 있었다. 누가 보면 훈련소 들어간 줄 알겠다고 생각한 R 은 편지의 오른쪽 위 모서리가 접혀 있는 걸 보고는 그걸 다시 원래대로 폈다.

P 의 말에 의하면, 여전히 숙소는 지루했고, 대머리 양반은 요즘 먹는 양이 줄었다나. R 은 어쩌면 진짜 지루한 건 P 가 아닌가라고 탄지를 걸고 싶었다.

3;

김광재 씨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과거 MIT 에서 분석철학을 공부하셨던 분입니다. MC 는 광재씨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다가 갑자기 연천군의 자랑이니 뭐니 하는 얘기로 빠졌다. 결혼식장에 MC 라니.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김광재씨는 몸은 트위스트를 추고 있었다. 뭐 어쩌겠는가, 내 누나 결혼식인걸. 광재씨는 연천군 출생이었고, 스스로가 말하길 개천에서 난 용이었다. 그리고 그는 대머리이기도 했다. 본인은 반의 반 정도 대머리라 우기지만.

한때의 소년 천재 광재 씨는 현재 수능출제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이날은 그의 누나의 결혼식이 있었기에 특별히 감금되어 있다가 나온 것이었다. 사실 부위원장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원래대로라면 그러면 안 될 일이었다.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일이라 생각했다.

60 세가 넘는 양반이 얼굴에 분칠하고 뒷풀이로는 트로트를 부르는 걸 보는 게, 광재씨로서는 영  
심란한 일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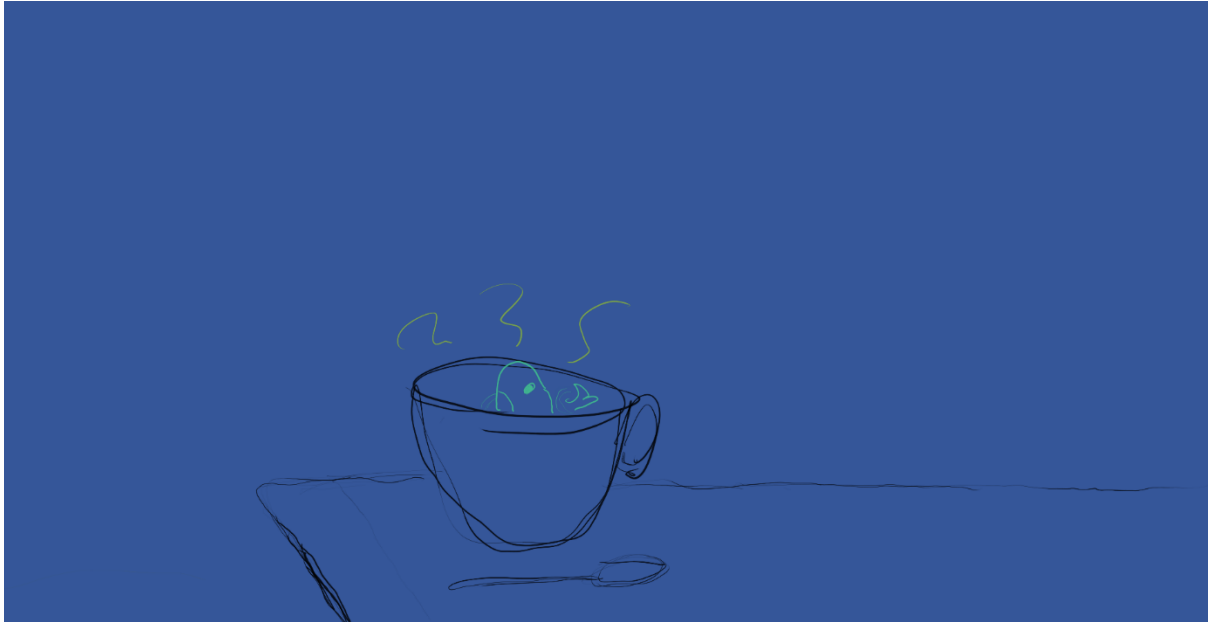
광재 씨가 근 30 년 만에 만난 동창들로부터 그들 특유의 오지랖에 시달리고 있을 때, 광재 씨를  
구해준 건 전화 한 통이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인해 광재 씨는 즉시 결혼식장을 빠져나와야 했다. 24 번 문제가 소실된  
것이었다.

4;

28 번 문제를 빼돌리며 P 는 죄책감이 들었다. 아주 잠깐. 그렇지만 미니쿠퍼를 몰고 나올 때, 옆  
좌석에 보안 요원이 있을 때는 마음이 한결 놓였다. 역시 보안 요원이야

## 지리의 힘 서평



김하석 지음

처음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알게 된 건 유튜브 추천영상에 역사 강사인 설민석 씨가 34 분 가량의 영상을 통해 책에 대해 강독해주는 영상으로 접하게 되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은 중국 전국시대 말기부터 전해져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풍수지리설의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설명판이라는 것이다. 산맥, 하천, 지하자원 등 많은 지리적 환경들이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고,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세계적인 슈퍼 파워를 갖게 된 것도 지리적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상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몇 개 나라만 다루게 되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내가 주관적으로 책에 대해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사실을 접하고 싶어 책을 보게 되었다. 책을 읽다 보니 흥미가 생겨 2 권도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읽어보았다.

하지만 책의 제목을 보면 지리의 힘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지리학을 다룬 책이지 역사학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책은 지리적 요인들을



설명하면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지리적 요인 때문에 역사에 어떠한 일이 있었음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중국이 신장, 티벳 지역의 독립을 탄압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신장, 티벳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설명했고, 미국의 루이지애나 지역 구매,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 등을 설명하며 미국이 패권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이유와 과정을 설명했다.

책의 저자는 팀 마샬이다. 책의 소개에 따르면, '파이낸셜 타임즈'의 특파원과 외교부 출입 기자를 지냈다고 한다. 또한, 국제 문제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수많은 취재 경험을 통해 책을 저술했다고 한다. 미디어 관련 전공자인 나로서는 전공 분야의 선구자인 저자의 생각을 통해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닌 멀리 보는 선구안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목차를 보자. 첫 번째, '중국, 4천 년 만에 대륙의 나라에서 해양 강국을 꿈꾸다' 이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 지리적 축복과 전략적 영토 구입으로 세계 최강국이 되다'이다. 그 뒤로도, 서유럽, 러시아, 한국-일본,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인도-파키스탄, 북극의 순서로 소개되었다. 한 권의 책 안에 전세계의 지리적 환경을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권의 구성은 1 권과 유사했지만 좀 더 흥미로웠다. 비교적 강대국 위주로 다룬 1 권에 비해 2 권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그리스, 터키, 사헬(사하라 사막 지역 경계지역의 아랍어 표현), 에티오피아, 스페인, 그리고 우주에 대해 다뤘다. 이 글을 통해, 책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 싶지만, 제한적인 여건 때문에 책에서 흥미로웠던 부분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중국의 경우, 외부의 이민족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어로서의 공격'을 통해 일종의 천연 장벽-서부로는 티벳, 신장 지역, 북부로는 내몽골 지역, 남부로는 해안가 등을 말한다-으로까지 수천년의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 영토를 확장해왔다고 말한다. 저자는 중국의 지정학적 여건을 설명하며 수천년에 달하는 중국 역사를 열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에 압축적이면서도 핵심을 짚는 요약을 통해 그의

통찰력과 식견을 알아볼 수 있었다. P.30 에 따르면, 한족의 몽골 지역으로의 이동과, 만주 지역의 인구수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인구수 비교를 통해 중국의 확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서도, 러시아는 이전부터 지속된 제재와 최근 사태로 인해 강도높은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과의 대규모 경제 협력 계약을 맺었다.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러 관계에 있어 '갑'의 입장을 취게 되었다고 말한다. 나는 러시아가 중국과의 조약을 통해 활로를 뚫고 생존의 길을 모색했다고만 생각했지 중국의 입장에서 자신이 유리하게 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서 저자의 생각이 새로운 발상을 주게 되어 인상깊게 다가왔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에 대해서도 책에서 언급한 발언이 눈에 띄었다. 지정학 전문 저술가인 로버트 D. 카플란의 견해를 인용해, 미국이 카리브해를 손아귀에 넣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듯, 남중국해도 결국엔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미얀마 서부 해안부터 벙골만을 통과하여 중국 남서부에 이르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다. 그 이유로 중국으로 공급되는 에너지의 80 퍼센트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데, 미국이 말라카 해협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대중국 전선을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번째, 미국의 사례이다. 요즘 인터넷에서 미국을 일컫는 재밌는 밈(유행하는 표현)이 있다. 미국의 지리적인 환경이 이른바 '방장 사기맵'이라는 것이다. 스타크래프트라는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의 방을 만든 방장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장소를 '방장 사기맵'이라는 표현이 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영토를 가졌다는 말이다. 미국은, 세계 3 위에 달하는 영토 크기와, 바로 위의 캐나다와는 우호 관계를 형성하여 안전을 보장받고, 아래의 멕시코와는 비교적 좁은 길이의 영토가 닿아 방어에 유리하며, 대서양 연안 평원 지대에 광활한 크기의 비옥한 토양에서 얻는 세계 1 위의 농산물 수출량,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미시시피 강을 통한 원활한 내륙 수송, 720 만

달러를 러시아에게 주고 산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수많은 자원들, 연안 해역에서 벌어지는 해양 굴착과 광범위한 지하 시추를 통해 얻은 막대한 양의 지하자원들 등등 미국은 지리적 위치에서 얻는 수많은 이점들이 미국을 세계 제일의 초강대국으로 되게 하는 원인이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책은 영국의 식민 지배 시절부터 시작한다. 초기 13 개의 주로 시작한 미국은 동부로는 대서양 연안에 서부로는 애팔래치아 산맥에 이르는 영토로 탄생하였다. 영국 정부는 세금 징수의 이점을 위해 애팔래치아 산맥 서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독립 전쟁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를 열게 된다.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포함한 일부 지역을 획득하여 태평양에 진출하게 되고, 프랑스로부터 뉴올리언스가 있는 루이지애나 지역을 구입한 미국은 오늘날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을 합친 넓이를 가진 영토를 얻게 된 것이고, 이 지역에 흐르는 미시시피 강 유역을 바탕으로 성장의 기반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곧, 당시 캘리포니아 북부까지 지배하던 멕시코와 충돌하게 된다. 미국은 먼로 독트린을 발표해 유럽인이 미주 대륙에 욕심내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지속적인 이주 정책을 통해 텍사스가 멕시코로부터 독립하도록 유도하고 텍사스를 연방에 가입시켰다. 1867 년, 러시아로부터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슈어드의 판단에 따라 알래스카를 720 만 달러를 주고 샀다. 당시에는 많은 비판이 따랐으나, 1896 년 금광이 발견되고, 거대한 유전 및 막대한 지하자원이 발견되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아, 미국이 현재 세계 제일의 초강대국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는 생각이 든다. 대략 300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임에도 광활한 영토를 가졌고, 에너지를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이며 ‘지구의 경찰’을 자처하며 국력을 과시하는 미국이 지금 시대의 패권국가임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수년내로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저자의 의견은 달랐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적어도 1 세기가 걸릴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이다. 경제적으로는 달성할 수 있으나, 군사적, 정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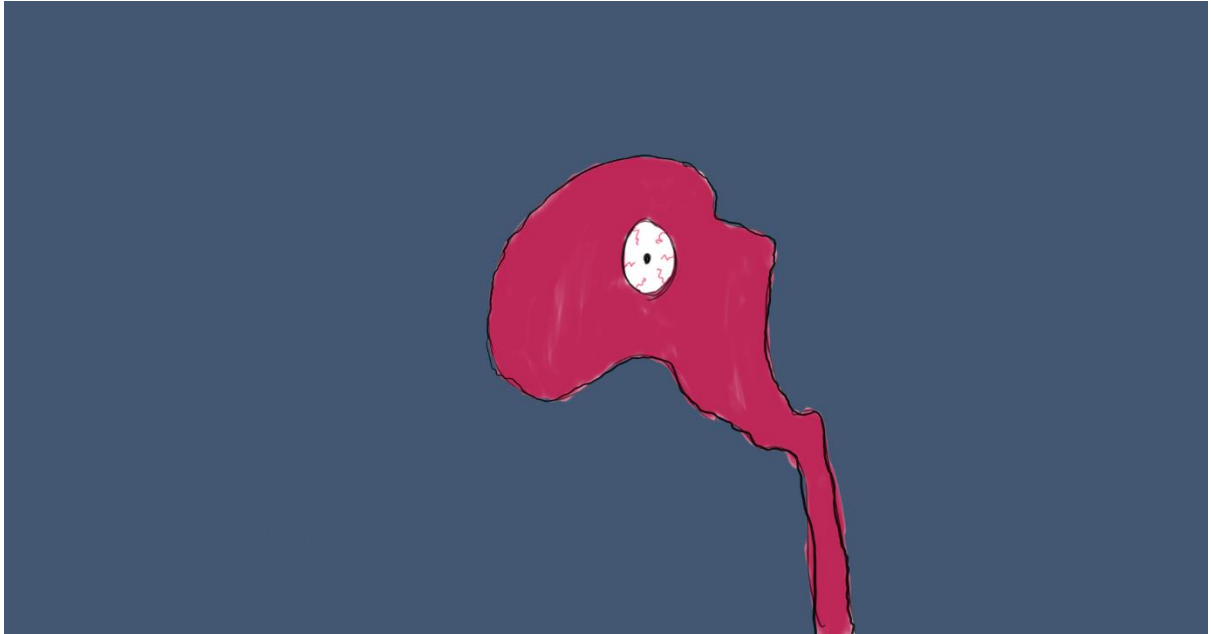
외교적으로 미국이 전세계에 다져놓은 기반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도 진행중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을 지켜보며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떠오르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외교정책을 기대한다.

세 번째로, 사헬 지역이다. 사헬이라는 말이 해안 또는 해변을 뜻하는 아랍어에서 왔다고 한다. 사하라 사막이라는 지역은 널리 알려져 왔지만, 사헬 지역은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우 구테흐스의 발언에 따르면, 사헬 지역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폭력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사헬 지역은 고대로부터 발전된 팀북투(말리 중부의 한 도시), 카르툼(수단의 수도)와 같은 큰 도시들과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사하라 사막 지역과는 다른 꽃, 나무, 우물, 다양한 음식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2 권의 296 페이지 중간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슬람, 아랍, 기독교, 유목 문화와 여러 정착 문화들 사이에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교류가 이뤄지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종족 갈등, 빈곤, 허술한 국경, 폭력성을 띠는 정치 및 종교적 이념의 영향들에 기후적인 영향마저 더해져 현재는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다.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사하라 사막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들과 중남부 아프리카를 연결하며 낙타에 물건을 싣고 먼 곳을 다니는 대상 무역이 이뤄졌던 곳이다. 그에 따라, 8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여러 제국과 왕국이 번영하였고, 다양한 문화가 생겨났다. 아랍의 상인들로부터 들어온 이슬람 사상은 토속 사상과 결합하였고, 15 세기부터 시작된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는 노예 무역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유럽의 열강들이 자기들 멋대로 정한 국경선 때문에 같은 부족 내에서도 갈라지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내전이 벌어지거나 국가 간의 다툼의 원인이 되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책에서 소개한 말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말리는 1960 년 프랑스령 서아프리카로부터 독립한 이후 1974 년, 1982 년 부르키나파소와의 두 차례의 전쟁을 겪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에 따라 국경 지역을 둘로 나눴고, 나이지 강을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북아프리카 베르베르 족의 한 분파인 투아레그 족이 지배하는 북부와 수도인 바마코가

위치한 남부의 세력 간의 알력 다툼으로 현재까지도 투아레그 족은 말리 정부에 대해 반정부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심지어는 2011 년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붕괴하고 리비아에서 용병 생활을 하던 투아레그 족은 부대에서 약탈한 중화기들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 팀북투를 포함한 북부 지역을 점령해버렸다. 그들은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 팀북투의 시디 야흐야 모스크의 정문을 떼어내 버리고, 주민들에게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며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들은 바마코까지 진격해 버렸지만, 지하디스트들의 폭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프랑스가 본격적인 공습을 시작했고, 일시적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절치부심한 반군들은 다시 조직을 구성하여 말리 북부는 물론 중부, 니제르 서부, 부르키나파소까지 활동반경을 넓히며 현재까지도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영국, 독일과 세계은행을 비롯한 많은 국제단체들이 사헬연맹을 결성하고, 특히 프랑스와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지하디스트들, 테러리스트들이 모인 사헬 지역의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 이러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수많은 난민들, 피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극도의 긴장 상태가 항시 유지되고 있는 분쟁지역이다. 이 지역의 분쟁이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더 이상의 유혈이 난자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해본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책에서 수많은 나라를 다루고 있고, 모두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각 나라들의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발생한 역사적 사건, 종교, 문화적 갈등 등 수많은 이야기를 비교적 압축적이면서도 핵심을 잘 짚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지리학, 지정학, 역사학에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부담을 느꼈을 독자들이 이 책을 접하고 난다면 부담스럽지 않게 책을 읽으면서도 많은 지식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 책을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는 말을 남기며 글을 마치고 싶다.

## 전조등



장준호 지음

“이번 역은 독섬유원지, 독섬유원지역입니다. 내리시는 분은 왼쪽으로..”

“엄마 나 힘들어. 미영이 힘들어.“

독섬유원지역에 다다르자 갑자기 노약자석에 앉은 중년의 여성이 마른 장작 타는 듯한 소리를 내었다.

괴상한 소란이 열차 내부에 울려 퍼지자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29 중대 3 소대 1 분대 석 일병(22 세), 총기로 인한 사고사’

형원이 롯데타워를 기준으로 바라본 한강은 절규를 외치고 있었다. 바로 뒤에서 그를 놀래켰던 그녀의 음성에 의해 하릴없이 묻히긴 했지만.

짐짓 속에서 튀어나오는 불쾌감을 숨기기 위해 의식적으로 형원은 옆간으로 옮겨 본인이 아침 풍경을 바라보다 떠올린 문장을 곱씹었다. 3년 전의 일이었다.

임산부석에 앉는 여성은 대부분 ‘실제로 아이를 뱀 모성의 원형’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이 찢 대로 찢 있거나, 아니면 화려하게 머리를 염색한 젊은 회사원인 듯 싶다.

지인 중에 최근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있었기에, 또한 그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어떤 경험을 겪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들었기에, (물론 그녀가 꽤나 감정적이고 보기보다 유약한 성정의 소유자라는 사실은 감안해서라도) 형원은 제 분수를 모르는 예루살렘 도성의 나귀같은 존재를 옆에서 말없이 흘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차창을 통해 영상화된 겨울날의 성수동은 어릴 적 온갖 의미없는 낙서로 수를 놓던 교과서마냥 빛이 바랬다. 싫지만은 않다.

대응 오토바이. 청기와 타운. 동진 미싱. 오복 상사.

오전 8시 44분. 상왕십리 3번 출구로 나오니 따가운 햇살이 차디찬 공기를 감싼다.

회사를 향해 걸어가면서 눈에 띄는 간판들.

항상 걸어가던 길에 지나쳤던 큰 글자들이 유난히 시야에 들어오니 ‘허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속절없이 튀어나온다.

‘목소리가 크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체격이라도 크던가. 오로지 커다란 존재만 본인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으며 - 작디 작은 미약한 존재들의 한숨소리는 도대체 왜 아무도 귀기울여 듣지를 않는 것인가.’

20xx년 9월 2일, 강원도 화천부대 15사단.

훈련병 한 명이 총기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사격훈련 당시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다.

20 발 모두 명중에 성공한 영현은 기분이 좋은 나머지 생활관에 들어오자마자 분대원 선임들과 동기들 앞에서 떨 수 있는 온갖 재롱은 있는 대로 부렸다.

“쫄리시면 돼지시던지.”

경희대 성악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영현은 본인의 굵은 목소리를 활용해 각종 성대모사를 꾸며낼 수 있었고, 유쾌한 그의 개인기 덕택에 지친 땀내로 가득한 생활관은 다시금 가벼운 활기를 되찾았다. 그저 분위기만 고양하였으면 되었을 것을. 여기서 멈추면 되었을텐데. 비극은 얼마 있지 않아서 곧바로 상연하기 시작했다.

분대원들은 영현의 우스꽝스러운 몸짓과 말투, 얼굴 표정을 관람하며 짧은 순간만큼은 훈련으로 인한 고됨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정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의 성과가 그에게 제공한 흥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온전히 파악하지는 못했다. 영현은 들뜬 자기 자신의 기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사격 훈련할 때 사용했던 K2 소총의 개머리판을 갑자기 두손으로 움켜 잡았다.

영현은 사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분대원들 몰래 앓고 있었다.

그는 충동적으로 총구를 그의 동료들에게 겨누었고, 장난삼아 방아쇠를 당겼다. 그때까지는 그가 들고 있는 소총이, 실탄을 모조리 다 쏘버린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은진은 교진의 두 눈을 멍하게 쳐다보았다. 교진은 물기 어린 목소리로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언제쯤이면 당신의 마음 역시 가질 수 있을까요.”

은진은 눈꼬리를 휘어잡으며 그를 향해 건조하게 웃어주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5 만원. 계좌로 송금했어요.”

교진은 옷걸이에 걸린 와이셔츠를 다시금 몸에 걸치며 매무새를 다듬었다.

그가 벨트를 잠그는 동안에도 은진은 아직 아무런 실오라기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네,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차타고 같이 집갈래요?”

“좋아요.”

교진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고 그녀와 함께 숙소 방을 나왔다. 직원으로부터 차 키를 다시 돌려받은 다음, 조수석에 은진을 앉히고 그녀가 사는 동네를 좌표로 찍었다.

차 내부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교진은 - 그가 건넸던 대사가 못내 아쉬웠던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용기내 전달한 속내를 거절한 그녀에게 화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 평소와는 달리 두 입술을 꼭 닫고 운전에만 집중하였다.

“태워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뵈게요.”

은진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운전대에만 시선이 가있는 교진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

밤이 깊었다. 새벽 1 시였다.

조건만남을 뛰고 온 다음에는 편의점 알바를 위해 꼭두새벽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황.

신림역 자취방에서 잠깐 눈을 붙인 다음 은진은 다시금 길거리로 나왔다. 하루에 두 번 연속으로 씻는 꼴이라 은진은 얼마 남지 않은 샴푸와 목욕 비누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월세가 밀린지 보름이 넘었는데 필요한 돈은 아직도 온전히 모아지지 않는다.

신용불량자도 낙인이 찍힌지 이미 오래되었다. 과연 그녀의 낭비벽이 문제인걸까.

그건 아닌 듯 싶다. 은진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하나의 큰 짐꾸러미처럼 그녀의 마음 한 켠에 놓여져있다.

도훈은 은진과 헤어진 지 2 년 후에 경기고와 압구정고 사이에 놓인 영동대교 밑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사인은 익사. 그는 강남구를 포함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촉망받는 경기고 출신 수영선수였다. 은진은 압구정고를 다녔을 당시 전교 회장을 2 년 동안 수행해온 이과 여자 영재반 학생이었다.

형원이 도선동 전용 주차장을 지나 복지관 마당에 도착하니 마지막 셔틀버스는 현관문 앞을 가로막은 채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의 하차를 돕고 있는 중이다. 가볍게 운전수와 인사한 뒤 계단을 타고 사무실로 들어간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렴."

원장과 사회복지사 두 명이 형원의 출근을 반긴다. 형원은 직원카드를 꺼낸 다음 카드기에 꽂는다. 카드에 적힌 출근 시간은 오전 8 시 56 분.

외투를 옷걸이에 건 다음 직원 명찰을 목에 둘러메고 형원은 물리치료실에 들어간다.

간호조무사가 오전 간식을 2 층 식당에서 준비한 후에 3 층으로 올리면 형원은 누워있는 어르신들을 모두 깨운다.

오늘의 간식은 두유에 탄 미숫가루. 따뜻하게 데워진 상태이다.

어미 곰이 그녀의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것 마냥 세 명의 노파를 한 명씩 일으켜 일일이 보온컵에 담겨있는 음료를 입안으로 넣어주었다. 물론 복지관 내에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과 치매로 인해 망가져 버린 지능에도 불구하고 직접 컵을 한 손으로 잡고 마실 수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눈을 뜨자마자 잊어버릴 꿈에서 깨기엔 너무나도 이른 한겨울 아침, 손가락 까딱할 힘조차 없는 것은 노년의 세월을 보낸 이도, 살 날이 아직 한참 남은 젊은이도 마찬가지이다.

형원이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준 지도 1년 반이 훨씬 지나버렸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운 좋게 곧바로 취업에 성공한 근무지가 바로 여기 이 레인보우 복지관이다. 운전면허증과 자차 모두 가지고 있는 형원이지만 집과 근무지 사이의 거리가 그닥 멀지 않아 충분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게 장점이었다. 무엇보다도 홍익동에 위치한 카톨릭 수도회가 주관하는 복지관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 형원은 본인의 첫 회사로 이곳을 선택했다.

형원의 영세명은 세례자 요한. 예수와는 사촌 관계로 그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그의 행적을 예견하고 그가 나아가야 할 고난길을 미리 닦아 준비한 근동지역의 선지자이다. 물세례를 예수에게 시행해 그리스도(기름 부은 자)라는 칭호를 부여한 제사장이기도 하다. 인류구원의 주인공 앞에 펼쳐진 캄캄한 밤길을 비춰준 전조등인 셈이다.

일요일만 되면 미사를 나가는 형원이지만, 그의 핸드폰에 있는 SNS 계정은 오로지 육체적 향락을 만족하기 위함이다. 점심 서빙과 설거지를 마친 다음, 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형원은 복지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피해 핸드폰으로 잠자리 상대를 구하곤 한다.

오후 1시 24분. 8시간을 빠짐없이 활동하기에는 너무나도 연로한 이용자들의 낮잠시간까지 성실히 근무한 3명의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다 식어버린 점심밥으로 식사한 다음, 형원은 휴게실에서 나와 일상적인 관습을 누릴 참이었다. 새로운 경험을 시켜줄 사람은 따로 없는지 검색을 무작위로 할 참에, 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휴게시간 끝나면 빵집에서 케이크 좀 사와라. 오후 간식 시간 전에 성탄 행사 있어. 영수증 챙기는 거 잊지 말고. 그럼 이따 보자.”

“알겠습니다. 2 시 되면 바로 법카 들고 나갈게요.”

.